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 | | | |
|------|--------------------|------|---------------------|
| 응모분야 | 웹소설 | 접수번호 |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작품제목 |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 | |

8화 : 생사고락의 시작

집회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어느새 4천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는 농민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허덕이던 유랑민들까지 합세한 숫자였다.

출신이야 어찌되었든 동학군에 든 이상, 모두 같은 하늘아래 백성이자 당당한 동학 교도들이 아니겠는가?

다들 짜 맞춘 듯 이마에 무명천을 두른 모습이었다. 비록 뽀얀 새것을 구하지 못해 썩어이 묵은 때로 빛이 바랬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탐관오리의 숙청을 외쳤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보국안민(동학을 세운 최제우의 교리이며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해 내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는 뜻을 지님)을 외친다는 점이었다.

현세역시 뽀뽀하게 접은 무명 띠를 이마에 두르고 장시(시장)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현세는 가장 선두를 맡고 있는 봉준의 뒤를 따르며 작게 속삭였다.

“봉 형, 이곳에도 사또같은 게 있습니까?”

봉준은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러자, 봉준 옆을 나란히 걷던 화중이 한마디 거들었다.

“아가 넌 그냥 연희 옆에 있지 그랬냐?”

“형님, 진짜 그래도 돼요?”

“허우대는 멀쩡한 게 시방 어디서 농을 쳐. 허허!”

농담 아닌데. 현세는 진심으로 연희 곁을 지키고 싶었다. 주삿바늘 공포증을 고쳐줬으니 응당 보답을 해야 인지상정 아닌가.

매제(妹弟) 속도 모르고 화중은 현세의 물음에 친절히도 답변을 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장현 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고을 수령이 업무를 보는 동헌(취백당)과 아전들이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건물들이라고 했다.

현세는 그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재차 되물었다.

“집회를 열면 그 수령이라는 자가 가만있지 않을 텐데요? 봉 형은 어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때였다.

“어린놈이 어디서 봉 형이여! 접주님이라 불러야제!”

청천병력! 딱 이 네 글자가 떠오르는 음성이었다. 어찌나 찌렁찌렁 울리는지 제법 덩치 값을 하는 현세도 동공이 활짝 열렸다.

기차 화통을 삶아 드신 듯 광광 퍼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현세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주먹깨나 쓰게 생겼네.’

현세는 상대방의 전력을 가늠하며 내심 감탄했다.

삼국지 장비를 연상시키는 덩수룩한 외모에 두터운 몸이 제법 인상적이었다. 무도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타고난 근골의 소유자가 근육까지 키운 모양새였다.

그런다고 질 줄 알고.

“형님은 뉘신데요?”

“뉘시여!? 너 시방 뭐라 그랬냐?”

도발적인 현세의 태도에 남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어딘가 모르게 술에 찌든 듯 검붉어 보이는 피부색이 괘괄한 성질머리를 더 잘 보여주는 듯했다.

남자가 발끈할수록 현세의 기세는 더욱 살아났다.

“형 님 은 뉘 신 데 요.”

보란 듯이 한 음절씩 끊어서 언급하자, 나란히 걸던 봉준의 입에서 픽, 웃음이 새어 나왔다. 어쩐지 아우와 대적할 만한 인물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었다.

남자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현세의 앞길을 틀어막았다.

“대갈뺨에 피도 안 마른 어린 아가가 어디서 말대꾸여, 말대꾸가? 네가 접주님 관심 좀 얻었다고 시방 나 헛티 개기는 것이여? 어디 한 번 먼저 나게 맞아볼 터?”

“개남 성님.”

나왔다, 동굴 보이스! 봉준의 지하 동굴 음성이 바닥에 차르륵, 깔림과 동시에 저 개남이라는 사내는 조개처럼 입을 짹 다물었다. 모르긴 몰라도 이곳의 대세이자 실세는 봉 형이라는 판단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봉준은 개남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현세에게 시선을 돌렸다.

“야는 내가 아끼는 성님, 김개남이여. 보다시피 성질이 쪼까 더러워. 그러니까 현세 너도 알아서 조심혀.”

“뭇이여!”

개남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봉준을 흘기며 소리쳤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칠 뿐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듯싶었다. 뻔하지, 뭇. 개남이 파들거리며 흥분하면 봉준은 적재적소에 나타나 분을 가라앉혀 주었을 터였다.

봉준은 싱긋이 미소지으며 발길을 다시 앞으로 돌렸다.

“뭇 허냐. 성님께 인사 올리지 않고.”

가벼운 말투였으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음성이 실려 있었다. 현세는 봉준의 뜻을 곧장 헤아리고 개남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였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개남 아재.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접주님 뜻이니께 양보 허야지, 어찌겠어. 아가, 허리 펴야.”

개남은 크흠, 헛기침을 하며 덩수룩한 수염을 거칠게 문질렀다. 어째 약간은 무안한 눈치였다.

현세는 보기보다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개남의 면모에 약간 당황했다.

역시 대한민국이든, 조선이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뒤통수를 치는 대부분의 사기 범죄자는 의외로 곱상한 외모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사기꾼과는 정 반대로 보이는 개남이 한마디 더 거들었다.

“조총을 만질 줄 안다고? 나중에 시범 한 번 보여줘 봐.”

현세는 입꼬리를 추어올리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Yes, sir!”

개남은 눈썹을 치켜들면서 동시에 인상을 썼다.

“야가 뭐라는 거? 야설?”

“푸릅!”

개남의 물음에 현세의 입에서 침이 한가득 튀어나갔다. 야설이라니! 보고 싶어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야속하게도 침 덩어리들은 개남의 얼굴에 친절하게 안착했다.

“아이고, 개남 성님! 낫짝에서 홍수 나갔어!”

그 모습을 보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나같이 저 성질머리 면상에 침을 뱉다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개남은 웃소매로 얼굴을 뼉뼉 문지르며 씹씹거렸다.

“너 시방 이게 무슨 짓거리여? 일부러 그랬지?”

“개남 아재가 이상한 소릴 하잖아요!? 그런 얼굴로 쫓아오지 마세요! 무서워!”

개남은 재빠른 열여덟 망아지를 붙잡지 못해 악을 썼다. 아무리 힘깨나 쓰는 저라도 십대를 이겨먹기엔 역부족인 모양이었다.

“저기 아우들은 성님이라고 하고! 왜 나 헌티는 아재라고 하는거?!”

현세는 아연실색했다. 아니,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건가? 거울을 좀 보시라고요! 이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다.

‘겉바속촉’이라더니, 개남 아재가 딱 그런 형국이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거예요. 강요하지 마요, 꾀대 같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현세는 널뛰는 호르몬 탕을 하며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지껄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상사에게 말대꾸를 해보겠는가! 특공대에 몸담으며 양껏 봉인해 둔 ‘깡죽임’이 비로소 해제되는 느낌이었다.

개남은 쫓아가던 발을 멈추고 봉준 옆으로 다시 끼어들었다.

“접주는 어쩌다 저런 아가를 옆에 끼셨소?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요.”

봉준은 들개처럼 방방거리는 현세를 흘끗 보고는 나직이 말했다.

“개남 성님도 꺾어보든 좋아하게 될거여.”

다행스럽게도 동학군 모두 싱그럽게 미소지으며 씩씩하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단순히 집회에서 끝날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하는 자체만으로 되었다는 표정이었다. 생사고락의 순간을 나누는 이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길쭉에 난 새싹들과 이름 모를 들꽃들도 그들을 반기듯 살랑거렸다.

뽀뽀한 빌딩 숲 사이, 매캐한 연기를 공기삼아 숨 쉬며 살아온 현세에게는 무척 생경한 풍경이었다. 수천 명의 발걸음이 지속되며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흙먼지에도 상쾌한 공기가 현세의 폐부를 가득 채웠다.

이윽고, 선발대로 먼저 갔던 동학군들 중 서너 명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산뜻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두령, 장시를 열 준비를 하느라 사람들이 꽤 모였습니다! 진무루(鎭茂樓 : 남문) 앞쪽으로 동지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들었제?”

봉준의 말 한마디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대열의 저 끝 편까지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들 한마음 한 뜻으로 염원을 담아 가슴속이 요동칠 만큼 크게 구호를 외쳤다.

“탐관오리를 처단하자! 제세안민(濟世安民 :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히 함)! 권귀(權貴 : 위정자)를 진멸하라!”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5색기가 아침바람에 남실남실 나부꼈다. 이쪽에서 온 동학군과 금구와 원평으로부터 몰려온 동학군까지 합세하자, 그 숫자는 거의 8천명에 육박하고 있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기동대란 기동대는 전부 동원하고도 남을 만큼 집회인원의 규모는 실로 대단했다. 현세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아님을 안도했다. 다행이 이곳 무장현 광장은 기대마(경찰버스)도 없고 방패와 봉으로 무장한 경찰 경력인원은 없으니까.

“두령! 부흥역에 있는 부대와 합세해서 현감을 가두고 군기를 탈취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온 동학군이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현세는 속으로 ‘나이스’를 연발하며 앞으로 부착해야 할 개머리판 개수를 계산했다. 또 손을 혹사시켜야겠지만 무기는 많을수록 좋고, 미리 대비한다고 나쁠 건 없었다.

현세는 동학군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봉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봉 형, 책! 책도 전부 탈취하라고 해주세요.”

“그건 어따 쓰려고?”

옆에 있던 개남이 불쑥 끼어들었다. 이 시국에 책을 가져가자니,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눈치였다.

현세는 앞뒤 재고 따질 것 없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우리는 조총에 대비할 방탄복이 따로 없잖습니까? 그럴 때는 책이 그나마 유용합니다! 뚫기도 쉽지 않고요. 여기 조총은 구릴만큼 구리니까 어느 정도의 방어는 가능할 겁니다.”

귀한 조총을 구리다고 푸념하는 현세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 개남이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싶어, 뒤를 따르던 홍색 기를 든 동학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가 말 들었제? 당장 동헌으로 가서 서책이란 서책은 전부 털어와!”

“개남 아재! 나이스!”

현세가 손을 뻗어 하이파이브 동작을 취하자, 개남은 멀뚱하니 지켜만 보았다.

“뭐여? 너 시방 나 치려고 그랬냐?”

말을 말자. 현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봉준의 옆에 딱풀처럼 붙었다. 봉준이 사망 플래그를 꽂았든 아니든 간에, 대세는 이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이윽고, 동학농민혁명군의 대의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우리 동학의 2대 교주님의 탄신일을 맞아 나,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이곳 무장현에서 창의문을 공포 하고자 한다! 동학군이 이리 한데 모였으니 우리와 뜻을 함께 하지 않겠는가!”

곧이어 8천명에 육박하는 동학군의 함성소리가 무장읍성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